

수출입은행 파나마 메트로 사업에 7억6천만달러 지원



1



2

1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조감도 2 파나마 메트로 3호선 노선도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은 현대건설 등이 수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에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7억 6천만달러를 지원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파나마 메트로 공사가 공정률에 따라 대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하면 수은이 이를 할인 매입해 현대건설 등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지역 중장기 인프라 사업에 널리 통용되는 방식으로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은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 내에 총연장 25km의 고가철로(모노레일)와 13개 역사, 1개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총 28억달러 규모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다.

지난 2019년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Team Korea’ 방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20년 2월, 기술·상업·금융 전 부문에서 최고점을 획득하며 파나마 메트로공사가 발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을 최종 수주했다.

수은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성공적인 파나마 진출을 위해 우월한 금융경쟁력을 제공했다. 수은이 입찰 단계부터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수주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주단 내 가장 경쟁력 있는 금융

조건으로 ‘금융지원의향서’를 발급한 것이다.

수은은 향후 5년간 7억6천만달러 규모의 수출채권을 매입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대주단에는 수은을 비롯해 파나마 국책은행, 국제상업은행 등 10여 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총 매입금액은 27억달러에 달한다.

수은 관계자는 “새로 도입한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 방식의 금융은 그동안 스페인, 중국계 건설사 등이 주도해 온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금융 경쟁력을 끌어올려 중남미 인프라 사업을 추가 수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이 완공되면 연 2만 t 상당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파나마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